

폭염 대응, 함께 고민하고 해법 찾는다

-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, 폭염 대책 관계기관·전문가 합동토론회 개최

- 행정안전부는 7월 11일(금)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, 현업 종사자, 민간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*한 가운데 ‘폭염 대책 관계기관·전문가 합동토론회’를 개최했다.

* (재난안전) 재난안전연구원, 한국방재협회, 한국방재학회, (기후·기상) 한국기후변화학회, 한국기상산업기술원, (보건·복지) 한국사회보장정보원,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, (사업장) 한국도로공사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대한건설협회, (전력·에너지) 한국전력공사, 전력거래소, 한국에너지공단, 한국전기안전공사, (농업) 한국농어촌공사, (도시·주거) 한국토지주택공사, 국토안전관리원, 한국환경공단, 동의동쪽방상담소, (배달업)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, 전국배달업연합회 등

- 이번 토론회는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된 폭염 상황에서,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.

- 먼저, 기상청의 여름철 기상 전망을 시작으로,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공유했다.

-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,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℃ 내외(일부 내륙지역 35℃)의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.

-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▲상시 상황관리 체계 운영 ▲온열질환 취약계층 보호대책 ▲야외 공연·체육활동 안전대책 ▲고위험사업장 대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지도점검 강화 ▲농수산물 피해 저감 대책 등 분야별 폭염 피해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.

- 한국전기안전공사, 질병관리청, 농촌진흥청도 각각 전기사용 안전대책, 온열질환 발생 현황 및 대처 방안, 농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며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.

- 이어서, 노인돌봄, 쪽방촌, 건설·운송업 등 폭염에 취약한 현장 근로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,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 보완점을 함께 모색했다.
- 김현미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센터장과 최영민 돈의동쪽방상담소 소장은 독거노인과 쪽방촌 거주자가 높은 실내 온도와 습도로 인해 온열질환, 호흡기질환 등에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했다.
- 배상운 대한건설협회 실장, 오문우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이사장, 박현일 전국배달업연합회 사무국장은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휴식과 적절한 휴게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.
-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대통령께서 취약계층이 폭염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 집행하고, 무더위 쉼터의 점검을 강조 하셨다”라며,
- “지자체와 관계기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- 아울러, 행정안전부는 일반 국민의 무더위 쉼터 접근성 개선과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지난 4월 29일 10개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‘생활 밀착시설 무더위 쉼터’의 내실 있는 운영에도 협조를 요청했다.
- * 농협중앙회, 새마을금고중앙회, NH농협은행, KB국민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수협중앙회, 신한은행, 신협중앙회, 이마트

담당 부서	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응범 (044-205-5110)
		담당자	사무관	한광순 (044-205-5116)
	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진희 (044-205-6360)
		담당자	사무관	전혜숙 (044-205-6364)